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의 허씨와 구씨 가문의 인물과 부자정신

정대율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차 례>

- | | |
|-------------------|----------------------|
| I. 서론 | IV. 승산마을의 만석꾼 부자 이야기 |
| II. 승산마을의 유래와 모습 | V. 승산마을 부자들의 부자정신 |
| 1. 승산마을 지명의 유래 | 1. 승산마을 부자들의 구국정신 |
| 2. 승산마을의 지형적 특성 | 2.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투자 |
| 3. 승산마을의 모습 | 3. 지역민에 대한 배려 |
| III. 승산마을의 역사와 인물 | 4. 허씨와 구씨의 화합정신 |
| 1. 승산마을 김해 허씨 | VI. 결론 |
| 2. 승산마을 능성 구씨 | 참고문헌 |

I. 서 론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는 부자동네로서 예로부터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 예로부터 승산리는 승산동 천석군 동네라 불리웠다.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서도 승산마을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었다. 승산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있다. “진주는 몰라도 승산은 안다”. 이 말 속에 한양의 명문세도가들이 승산마을 부자들과 얼마나 서로 인연을 맺기를 원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구한말 승산마을에는 만석군이 2가구, 5천석군이 2가구를 포함하여 천석군 이상의 가구가 16가구나 있었으며, 전체 재산의 규모로 보면 약 5만석에 달한다고 했다¹⁾.

승산마을은 상동과 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동의 김해 허씨와 상동의 능성 구씨의 집성촌이다. 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550년 전 조선시대 초기 김해 허씨 문중이 승산마을로 이주하였고²⁾, 310년 전 능성구 씨는 김해 허씨와의 혼맥을 통해 승산 마을에 이

1)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충도 사무총장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까지 승산마을 천석군 이상 부자들이 16가구에 전체 재산은 약 46,000석 이었다고 하나 재산을 낮게 부르는 허씨와 구씨집안의 겸손함을 감안 할 때 실제로는 60,000석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박용국의 “승산마을 역사변천”에 관한 연구를 보면, 허씨 문중이 정확히 언제 승산리에 입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하여 볼 때, 1474년(성종 5)년에 허추(許鍾)가 진양

거하였다³⁾. 지난 300년 이상 이들 두 가문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서로 간에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이 승산마을에 이거한 이후 이들 가문에서는 조선조에 김해 허씨 문중에서 1명의 문과급제자, 20명의 무과급제자, 생원진사시 27명을 배출했으며, 구씨가문에는 문과급제 1명, 무과급제 4명, 생원진사시 1명 등 과거합격자를 배출했다(허권수, 2018).

근대에 들어와서 승산마을의 허씨와 구씨 부자들은 축적된 토지자본을 이용하여 구인회를 중심으로 상업자본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었으며, 이것이 기반이 되어 오늘날 LG/GS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근검절약과 겸손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으며, 화합을 제일의 가훈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가문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데 가장 앞장섰으며, 국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홀연히 일어났다. 이러한 그들의 근검절약과 화합의 정신이 오늘날 대기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겸손의 미덕이 있었기에 오랜 세월 동안 부자로 남아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의 구휼정신과 구국정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II. 승산마을의 유래와 지형적 특성

1. 승산마을 지명의 유래

승산리는 예로부터 승산동이라 불렸으며, 승산교, 승산도랑, 승산연정 등의 관련 지명들이 남아 있다. 승산리는 조선조 말까지 진주목에 속해 있었으나, 1906년~1913년까지 함안군으로 이속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다시 진주로 편입되어 승어산리(상성어산), 하승어산, 무등촌, 허곡, 임내리를 병합하여 승내리라 하였다. 80여 년간 승내리로 불리다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지명 찾기” 운동을 통해 1995년 11월 1일 진주시 조례 제149호에 의하여 다시 승산리로 변경되었다.

당시 승산리 지명환원추진위원회가 진주시장에게 보낸 서한에는 “우리 승산(勝山)은 예부터 산세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당터로 알려져 왔습니다. 승산은 많은 부자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왜정 때엔 우리 독립군에 은밀히 많은 군자금을 부담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반사로 부자들의 기세가 부담이 된 왜놈들이 방어산(防禦

강씨와 결혼하면서 이거했다는 것은 정확하다. 물론 그의 부친인 허문손(許文孫)이 삼가현에서 옮겨왔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3) 1701년부터 1706년 고령현감을 지낸 구문유(具文游)가 아들 구반(具槃)이 승산리 허씨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승산리에서 1715년 큰아들 구경찬(具鼎燦)을 낳았다는 기록으로 볼 때 1715년 이전에 승산리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박용국, 2017).

山) 옛 승어산(勝禦山) 지기가 이 곳 승산(勝山)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동네의 지기(地氣)를 가두어 버리기 위해 교묘히 승산(勝山)을 승내(勝內)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50대 이상 세대들은 승산(勝山)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 지방에서도 승산(勝山)이라면 알아도 승내(勝內)라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많은 혼돈과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이충도, 2018).

2. 승산마을 지형적 특성

승산마을은 지형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방어산(防禦山)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뒤로는 심방산 줄기인 보양산(寶陽山)이 나지막하게 감싸고 있다. 그리고 심방산과 보양산 너머로 남강이 휘감아 지나가고 있다. 풍수적으로 보면 승산마을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에 속한다. 즉, 학이 둥지를 틀어 알을 품은 형국이다. 승산마을 앞에 있는 (구)지수초등학교 자리로 향해 뻗은 산줄기는 어미의 젖가슴과 같아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형국이라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형국이다. 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마을이 바깥으로부터 숨겨져 있어 큰 환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 앞으로 방어산과 쾌방산 자락의 청원리 뒷산에서 발원한 지수천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수천을 따라 비옥한 땅이 있으며, 아무리 많은 비가와도 큰 물난리를 겪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구한말 남강의 범람을 막아 강뚝을 쌓아 엄청난 농토가 확보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부자들이 나왔다. 현재 승산리는 상동마을과 하동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동마을은 자연부락인 숲안과 허실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승산마을은 지수면의 면소재지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마을 앞으로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지수 IC가 맞닿아 있어 매우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진주와 함안, 그리고 창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에서 승용차로 2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함안에서는 승용차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창원에서도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승산마을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앞에 병풍처럼 놓인 방어산(防禦山)이다. 방어산의 원래 명칭은 승어산(勝禦山)이었다. 승산마을은 바로 승어산에서 따온 말이다. 예로부터 승산마을의 부자들은 새벽 일찍 방어산 자락에 걸린 새벽별(새별, 금성)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그래서 승산마을 출신들이 일군 LG, GS 그룹의 명칭에 새벽별을 상징하는 명칭이 많다. 그래서 지수초등학교 출신의 기업인들이 설립한 기업의 명칭에 별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많다. LG/GS그룹의 전신인 금성사, 효성, 삼성 등이 별과 관련된 명칭들이다. 새벽별은 부지런함을 상징한다. 그 옛날부터 승산마을 부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는가를 알 수 있다.

3. 승산마을의 모습

승산마을 입구에 있는 지도를 보면 작은 마을에 LG 구인회 생가, GS 허만정 생가 등 LG/GS 창업주들의 생가들이 즐비하여 있다. 또한 쿠쿠전자 구자신 회장 생가, LIG 창업주 구자원, LG 창업주 구인회, GS 창업주 허만정 생가가 나란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도 우람한 대문과 담벼락 옆으로 누구의 생가인지 알려 주는 안내판을 통해 부자마을의 신묘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마을 한가운데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옛 지수초등학교에 다닐 때 머물던 매형 허순구의 집, 또 다른 골목을 돌면 허구연 야구해설위원의 생가도 있다.

승산마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지수면사무소 바로 옆에 전국 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원인 효주공원(曉洲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마을 앞에는 (구)지수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지수초등학교는 1921년 5월 9일 개교하여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학교로서 이병철, 구인회, 조흥제 등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이 다닌 학교이다. 원래 청계공(淸溪公 1866~1966) 허복(許馥)이 학교 부지를 희사하여 지수면소재지인 승산리에 건립되었다. 지수초등학교는 6.25 전쟁 때 완전 소실되어 전후에 다시 지어졌으며, 1970년대 현대식 교사를 다시 신축하였다. 일제시대 지수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인근의 진주와 함안, 의령 등에서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였다. 당시 지수초등학교는 서부경남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학교 중의 하나였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배움의 전당이었다. 1980년대 100대 기업인중에서 지수초등학교 출신이 33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Ⅲ. 승산마을의 역사와 인물

1. 승산마을 김해 허씨

김해 허씨 문중은 경상우도(일명 江右地域)에서 인재와 산림경제(山林經濟)로 저명한 가문으로 유림사회에서 이름이 높았다. 승산의 허씨 가문은 고려 후기 우현(迂軒) 허옹(許翕)을 중시조로 삼는다. 개성에서 벼슬하던 허옹이 처향을 따라 단계(丹溪)⁴⁾에 정착하였고, 그 뒤 합천 삼가(三嘉)를 거쳐 조선 전기인 1400년대 후반 허추(許鍾)가 현재의 승산리(勝山里)에 전거하였으니, 승산에 자리잡은 지 550년 정도 된다. 허추의 손자 관란(觀瀾) 허국주(許國柱)와 그의 손자 연당(蓮塘) 허동립(許東立) 때부터 창의(倡義)와 출사로 이 가문이 더욱 현저해지게 되었다(허권수, 2018).

관란 허국주(1548~1608년)는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으며 지조와 기개가 탁월했다. 45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의병을 모아 창의 하였다. 허국주는 재산을 기울여 의병 700명을 모아 진주판관 김시민 휘하에서 복병장을 맡았다. 1592년 5월 진주성 대첩에서 왜적과 싸워 죽이거나 포로를 잡아 전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승진하여 본도 병마우후사가 되었고, 그 후 선무원종 삼등공훈에 기록되었으나 공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 후 관직에서 물러나 남강의 하류인 지수 염창강(濂滄江)가 염창나루 옆 절벽위에 정자를 지어 관란(觀瀾)이라 편액하고 당대의 명사들과 시를 읊으니 세상 사람들이 기로게 11현이라 했다.

또한 허국주의 손자 허동립(1601~1662년) 역시 용맹하여 장군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경상지역의 지방을 두루 역임하고, 관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副摠管)에 이르렀다. 1636년(인조 14)에 공지수(孔枝秀)라는 인물이 조선으로 귀순해왔다. 청(淸)나라에서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공자의 후손인 그를 숨겨주었다. 청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한때 관직에서 체직되었다. 1649년(인조 27)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副摠管)에 제수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교분이 있었다. 허동립의 아들 역시 용맹하였으며, 그 중 둘째 아들 허성(許晟)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장연부사(長淵府使)가 되었다.⁵⁾

조선조에 김해 허씨 문중은 1명의 문과급제자, 20명의 무과급제자, 생원진사시 27명을 배출했다. 주로 문관보다는 무관을 많이 배출한 무인정신이 있는 집안이다. 조선시대 당시 한 마을에 사는 한 인물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급제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타 문중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여타 문중에서는 가히 따라올 문중이 없었다.

4) 지금의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허씨 문중 인물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이 무과를 통해 출사 하였으면서도 문한(文翰)이 있어 벼슬에서 물러나면, 학자들과 어울려 시문을 주고받았고, 문집을 남겼다.

둘째, 국가민족에 위기가 있을 때 충절을 지켜 분연히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 관란 허 국주가 창의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연당 허동립이 쌍영 전투에 참여하여 크게 전공을 세웠다. 영조 때 조정에 반기를 든 정희량의 난 때는, 허당은 정희량과 친동서 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의하여 토역에 참여하였다.

셋째,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 말기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이 허씨의장(許氏義莊)을 만들었다. 그 아들 효주(曉洲) 허만정(許萬正)은 일신학교[진주여고 전신]를 지었고, 남해 노량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렬사(忠烈祠)를 지을 때도 헌성하였다. 청계(淸溪) 허복(許馥)은 박애사(博愛社)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대납하고 구제사업을 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구제사업을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였다.

넷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사우(師友)로 삼아 교유하여 개인의 학문 발전은 물론 가문의 격을 높였다. 한 집안 안에서 남인열과 노론계열로 분열되었지만, 양 학파의 최고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다섯째, 조상을 받드는 향념이 지극하고, 문중에 자부심을 갖고 종사(宗事)에 심력을 다 쏟았다.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 이외에도 조상을 위하여 위토(位土)를 장만해 들인 사람이 여럿 있었다.

승산리 허씨 가문의 근대의 인물로는 일신학교를 세운 지신정 허준과 그의 아들 효주(曉洲) 허만정(許萬正), 그리고 그의 손자로서 LG그룹 창업에 참여했던 허정구(許鼎九), 허준구, 허신구, 허완구 등이다. 현재 GS그룹 회장 허창수와 허명수는 허준구의 아들이고, 허동수는 허정구의 아들이며, 허경수는 허신구의 아들이다. 이렇듯 승산마을 허씨 가문에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배출되었다.

2. 승산마을 능성 구씨

능성구씨는 조선 전기부터 현달한 관료 가문으로 본래 양주군, 파주군 등지에서 세거하는 문인 집안이었다. 또한 여러 왕대에 걸쳐서 공신이 배출되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훈척 가문으로 알려져 왔다. 승산리의 구씨는 본래 서울의 명문가문이었고, 당파로는 서인계열에 속했다. 조선 7대왕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구치관(具致寬)의 아우의 후손으로, 16대왕 인조의 외조부인 구사맹(具思孟)의 아우인 구사민(具思閔)의 후손들이다. 구사민의 증손인 구반(具盤)이 조선 숙종조에 승산리 김해 허씨 가문의 허륜(許綸)의 딸에게 장가들면서 이곳으로 옮겨와 살았다. 구씨가 승산리에 들어와 산 것은 1700년대 초반으

로 대략 3백 년 정도 된다. 구반은 LG 창업주 구인회의 7대조이다. 구반의 승산마을 입향 이후 문과급제 1명, 무과급제 4명, 생원진사시 1명 등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였다(허권수, 2018).

구반의 부친 구문유(具文游)는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나가 1692년 경상도 현풍현감, 1701년에 고령현감 등을 지냈다. 전해지는 어떤 기록에 구문유가 현풍현감에 재직하면서 진주의 만석군 집안인 허륜의 딸과 결혼시켰다고 하나, 구문유가 현풍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구반은 4살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대가 맞지 않다. 그러나 구문유가 오랫동안 경상도에서 고을원을 지내면서 경상도의 사정을 잘 알게 되어 승산리의 허씨 가문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결혼이 성사되었을 것이다. 승산리 구씨들은 주로 혼인을 진주에 사는 김해 허씨, 재령 이씨, 진양 강씨, 진양 하씨, 해주 정씨 등과 하고, 함안의 함안 조씨, 고성외의 전주 최씨 등의 집안과도 혼인을 하였다. 구씨들은 혼맥을 통하여 지역의 여러 유지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구반의 장인 허륜은 부총관 허동립(副總管 許東翌)의 손자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두드러진 행적이 있지 않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구반은 1718년 30대의 나이로, 4세, 3세, 2세 되는 어린 세 아들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부인 허씨가 씨가의 원래 근거지인 서울로 옮겨갈 수 없었으므로, 친정인 승산리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후 구반의 후손들은, 당시 진주 고을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던 외가 허씨 가문에 힘입어 비교적 쉽게 진주의 선비(士族)으로 정착할 수가 있었다. 구반은 3남을 두었으나, 그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손자가 9명, 손녀가 5명 등 가족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후 문과 급제자 1명, 무과 급제자 4명, 진사급제자 1명이 배출되어 관계에 진출했다⁶⁾. 이 집안은 주로 무관(武官)의 집안이었다.

LG그룹의 구인회는 구반의 3남 구정준(具鼎俊)의 후손인데, 구정준의 큰 아들 구은(具垠) 계열이다. 구은의 현손자 만회(晩悔) 구연호(具然鎬, 1860 - 1940)는 1883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 승정원 가주서(承政院 假注書),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 등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어지럽고 외침이 시작되는 곳을 보고 1901년 이후 벼슬에 뜻이 없어져, 곧 낙향하여 학자로서 생애를 보냈다. 구연호가 곧 LG 창업주 구인회의 조부이다⁷⁾.

문과급제자인 구연호(1861~1940년)는 50세(1910년) 때 국권침탈의 변고를 듣고 3일간 식사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방안에 칩거하였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바깥일에 나서지 않고 스스로 죽은 사람인양 여기는 자기체벌을 고집하며 망국의 슬픔을 되새겼다. 연호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때때로 조정 고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건의서를 보내었다. 일본의 침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망국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벼슬에서 사퇴하여 출처(出處)의 대절(大節)을 지켜나갔다⁸⁾.

6) 원창애, 승산마을 綾城具氏 문중의 인물과 전개,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93-123.

7) ibid.

8) 김영주, 晩悔 具然鎬의 生涯와 出處,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179-217.

구연호는 고향에서 지내면서 손자 구인회에게 15세 때까지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 이때 구인회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완전히 다 익혔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구인회의 머리 속에는 유학사상과 남명학이 많이 흡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연호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신식학교 가는 것과 손자 구인회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지지하였다.

구연호의 아들 구재서(具再書)(1887~1959년)는 1930년 경 상해임시정부의 김구(金九) 선생에게 독립운동자금 5천 원을 지원했다. 구인회도 1942년 의령 출신의 백산(白山) 안희재(安熙濟) 선생의 독립운동자금 요청에 응하여 1만 원을 지원했다. 구인회는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야겠다” 라고 과감하게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한다. 구인회의 사업 시작할 때의 준비금 총액이 2천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큰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다⁹⁾.

구연호의 후손들은, 인화를 바탕으로 정도경영(正道經營)을 표방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구인회의 말 가운데 “사람을 사귀었으면 결별하지 말고, 부득이 결별한다 해도 적을 만들지는 말아라.”, “남이 하는 사업을 보고 뒤따라 같은 사업을 벌려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들은, 유림 가문의 자손다운 말이다.

구인회가 장남 구자경을 젊을 때 현장에서 온갖 잡무를 처리하며 고생하게 만든 것도 더 큰 인물로 만들려는 유학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총수가 된 뒤에도 구자경은, LG에 동참하고 있던 허준구, 허신구 등 허씨 집안 인물들을 대할 때, 주인이라고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깍듯이 예절을 차려 대접했다. 이렇듯 LG 창업주인 연암 구인회 회장은 청년시절 상해임시정부 독립자금 전달을 맡았으며, 기업을 일으켜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연암공업대학을 설립하고 진주시립연암도서관을 짓는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그의 구국정신과 지역민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9) 유라준, 경제인 이야기

[표 1]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문중 역사 요약

연대	김해허씨 문중	능성구씨 문중	비고
1400	○ 迂軒 許邕(7세) 1337년 산청 단계 낙향 →許小由(8세) →許隅(9세) →許崐(10세) →許文孫(11세) ○ 1455~1521 許鍾(12세) 입향(추정) (1474, 성종 5년)		1392년 조선건국
1500	○ 1548~1608 許國柱(15세), 무과 급제, 임란 700명 창 의 진주성 전투 공훈 ○ 1573~1610 許珪(16세) 무과 급제(처부 재령이씨 이희익), 가선대부(재상), 평안도 병마절도사	○ 1542~1593 具思閔(13세)→具憲(14세) →1583~1620 具仁至(15세) 진사과급제	1501~1572 남명 조식 이희익 고조부 茅隱公李午 1592년 임진왜란
1600	○ 1601~1662 蓮塘 許東畝(17세), 무과 급제, 평안도 병마절도사, 7개 마을부사, 6도 병마절도사 - 3남 許晩(18세)→ 許綸(19세)	○ 1614~1683 具峯(16세) 간성군수 ○ 1688~1718 省齋 具槃(17세), 許綸 사위	
1700	○ 1758~1829 濂湖 許澮(22세), 무과급제, 전라감영중군, 許駿 증조부	○ 省齋 具槃 1710년 입향(처향 이거)	308년전
1800	○ 1844~1932 止愼亭 許駿(25세) ○ 1897~1952 曉洲 許萬正(26세)	○ 1860~1940 晩悔 具然鎬, 문과급제 홍문관, 승정원, 사간원, 사헌부 대간 ○ 1886~1956 具再書	
1900	○ 1911~1999 허정구(삼양통상 명예회장) - 1938~ 허남각(삼양통상 회장) - 1943~ 허동수(GS칼텍스 대표이사) - 1946~ 허광수(삼양인터네셔널 회장) ○ 허학구(새로닉스 회장) ○ 1923~2002 허준구(LG건설 명예회장) - 1948~ 허창수(GS그룹 회장) - 1953~ 허진수(GS칼텍스 부회장) - 1955~ 허명수(GS건설 대표이사) - 1957~ 허태수(GS홈쇼핑 대표이사) ○ 1923~ 허신구(GS리테일 명예회장) ○ 1936~2017 허완구(승산그룹 회장) ○ 1944~ 허승효(알토전기 회장) ○ 1946~ 허승표(미디어아트 회장) ○ 1950~ 허승조(GS리테일 회장)	○ 1907~1969 구인회(LG창업 회장) - 1925~ 구자경(LG 명예회장) - 1945~2018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 1978~ 구광모(LG그룹 회장) ○ 1923~2016 구태희(LS창업 회장) - 1946~ 구자홍(LS회장) - 1950~ 구자엽(가온전선 부회장) - 1952~ 구자명(LS니꼬동제련 부회장) ○ 1926~2012 구평희(E1 명예회장) - 1953~ 구자열 - 1955~ 구자용 - 1957~ 구자균 ○ 1928~2011 구두희(전 에스코 명예회장) - 1964~구자은	
과거 합격 자	○ 과거합격자 - 문과급제 1명, 무과급제 20명 생원진사시 27명	○ 과거합격자 - 문과급제 1명, 무과급제 4명 생원진사시 1명	

※ : 지수 승산마을의 역사와 인물(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7.10.27) 내용을 토대로 이충도 지수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작성함.

IV. 승산마을의 만석꾼 부자 이야기

현재 승산마을에는 LG 구인회 회장 생가, LIG 구자원 본가, GS 창업주 허준구 생가와 그의 부친인 허만정 선생의 집, 그리고 그의 조부인 허준 선생이 만석군을 이룬 집을 포함해 많은 부잣집들의 집성되어 있다. 또한 마을 내 허준 선생을 모신 사당인 지신정을 비롯하여, 구씨 대중중의 제각인 창강정, 허씨 대중중의 제각인 허연정, 허씨 종중 제실인 연산제 등 수많은 한옥 사당들이 있다. 구한말에는 지수 승산에는 만석군이 2집, 천석군이상이 16집이나 되는 부호촌이었으며, 동네 전체 부를 합하면 약 5만석 정도 규모로 추정된다. 허씨들은 베풀기를 좋아했는데 지신정 허준이 허씨의장을 만들었고 효주 허만정이 일신학교(현 진주여고)를 짓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다.

승산마을에는 100년이 넘는 한옥들이 있다 이 중에서 문화재로는 구인회 회장의 처가집인 허선구 고가(古家)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허선구 고가는 1914년에 건립된 100년이 넘는 건물로 지수부잣집을 대표하는 건물로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 외에서 허만선 고가도 100년이 넘는 한옥으로 그 보존가치가 높다. 진주시에는 허만선 고가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허씨 집안이 이렇듯 큰 부자가 된 이치는 간단했다. “지독히도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고, 번 것은 쓰지 않았으며, 쓰지 않으니 자연히 쌓일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이다. 허씨 집안 사람들의 근면과 절약에 관해서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온다. “담뱃대에 담배를 재고 빨기는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입김만 내뿜었다” “여름에 부채를 펴고는 있지만, 부채가 상할까봐 부채 대신 얼굴을 흔들었다” “머슴들이 일하는 곳에 와서 담뱃대에 담배를 재놓고 가곤 했는데, ‘내가 언제 이 담배를 피우러 올지 모르니 쉬지 말고 일하라’ 는 뜻이었다” ….

그러나 ‘정승처럼’ 쓸 줄 아는 미덕도 겸비한 구두쇠였다. 허씨 가문은 이른 아침이면 쌀 한 말로 밥을 지어놓고 날마다 물려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끼니를 대줄 만큼 인심이 후했다고 한다. 1920년 4월13일자 ‘동아일보’ 에는, 허만정씨의 부친인 승지(承旨) 허준(許駿)이 “생활비만 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공익사업에 쓰고자 해 재산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허만정 선생도 1925년 진주에 일신여고를 세우고, ‘백산상회’ 라는 위장회사를 만들어 독립자금을 조달했다¹⁰⁾.

허씨 가문의 사람들은 근검과 절약으로 큰 재산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쓸 줄 알았다. 이들은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 잡음 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 없이 기업경영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만정이 력키에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출자하고 LG에 근무하는 자기 아들 허신구 등 자기 아들들에게, “앞에 나서지 마라.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라” 고 순응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쳤다. 허씨들

10) 新東亞, LG의 한쪽 날개 許氏家 사람들

은 구씨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모두 구씨들의 공으로 돌렸다. 이런 것이 다 유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족기업자본의 원천은 바로 만석꾼 지신정(止愼亭) 허준(許駿)(1844년~1932년) 선생의 근검절약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향년 42세(1886년, 고종 23년)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그 후 47세(1891년) 때 첫 관직인 선공감 가감역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57세(1901년) 중추원 의관, 59세 때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승정원에서 봉직 되었으나 세상이 시끄럽자 귀향하였다. 신정 허준 선생은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잘 지키면서 근검절약을 통해 당대에 만석꾼이 되었다. 그가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이 오늘날 LG/GS 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주식회사(현, LG 화학)와 삼성물산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



[그림 1] 관란정에 걸린 현판들(당대의 대학자들이 보낸 글)

지신정 허준은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 간재(艮齋) 전우(田愚)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적 인맥을 쌓았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가문과 학문적 교류와 혼맥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하였다. 정재규는 노사 기정진의 제자로 남명 조식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뇌룡정(雷龍亭)을 지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다. 지신정 허준 선생이 얼마나 남명선생의 경의사상을 존중하고 실천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로 자신이 기거하는 사랑채의 현판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석꾼 허준선생이 생전에 사신 지신고가(止愼古家)의 본채인 사랑채의 현판에는 성경제(誠敬齋)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지신정 허준 선생의 삶의 철학이 경의사상에 있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허준 선생은 자신의 선조인 관란현 허국주를 모신 사당인 관란정을 대규모 중수하였다. 현재 관란정(觀瀾亭)에는 최익현(崔益鉉), 전우(田愚), 이길(李佺), 이흠(李屹) 등이 보낸 글을 적을 현판이 보존되어 있다. 구국지사 관란 허국주를 모신 사당인 관란정의 중수에 글을 보낸 분들의 대부분은 구한 말 당대의 최고의 유학자이자 구국운동을 벌인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허준 선생과 가까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학문적 교류는 물론이고, 기울어 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잘 지키면서 근검절약을 통해 당대에 만석꾼이 되었으며, 그 재산을 잘 지켜 오늘날 LG/GS의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2명의 부인(재령 이씨 유고 후 함안 조씨와 혼인) 3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두었으며, 당대의 막강한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또한 그의 둘째 아들 효주 허만정 선생은 함천군 쌍백면 묵동의 명문가문 정씨 부인과 혼인하여 아들 5명(정구, 학구, 준구, 신구, 완구)을 낳았다. 정씨 부인이 별세한 후 일신학교 1회 출신인 진주 하씨와 혼인하여 3명의 아들(승효, 승표, 승조)를 낳았다. 쌍백면 묵동은 조선말 최고의 유학자 노백헌 정재규¹¹⁾가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허만정은 이들 가문과 혼맥을 맺었다.

그리고 허준 선생은 77세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열 명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집안 친족을 모아놓고 사후의 재산(위태로운 것) 분배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이것을 비문으로 새겨 후손들의 재산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허씨 의장비(許氏 義莊碑)’이다. 이 ‘허씨 의장비’에는 진주여고의 전신인 일신여고를 설립하였고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조상, 친족, 이웃, 국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조상수호에 180 두락, 친족구휼을 위해 140두락, 딸들에게 120두락, 일신학당(현 진주여고) 건립에 500두락, 마을에 궁핍한 사람을 돕는데 7천원을 분배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허씨 의장현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휼과 60이상이 된 노인의 양로에 대해 적혀 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관직(승지)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말년에 마을 뒷편의 명당자리에 자신의 호를 딴 지신정(止愼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을 가다듬었다. 지신정이 있는 곳은 보양산 자락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여 학문을 닦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지신정은 그 풍경이 아름답고 명당자리여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하기를 원하는 곳이다. 특히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방어산을 방문한 내려와 둘러보는 곳이다.

11) 정재규는 노사 기정진의 제자로 남명 조식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뇌룡정을 지었다. 축석루 현판을 쓴 유당 정현복은 정재규의 제자로서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며, 그의 아들 소헌 정도준 역시 현재 최고의 서예가이다. 허씨 가문의 많은 현판과 비문들은 이들 두 부자가 쓴 것이다.



[그림 2] 지수 송산마을 만석군 허준 선생과 허씨의장비

V. 승산마을 부자들의 부자정신

1. 승산마을 부자들의 구국정신

지수 승산마을의 부자들의 정신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배워야 할 기업가정신의 원류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인회 회장의 선친인 구재서와 그의 조부인 구연호는 한말 유명한 유학자이다. 구연호는 나라가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에 낙향하여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가다듬었고 손자 구인회를 키우는데 총력을 다 했다. 구인회는 젊어서 상해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만석군 허준과 그의 아들 허만정 선생은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인물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고, 일신여고(현, 진주여고)를 설립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구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지수 승산리의 부자마을은 단순한 부자마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자정신과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부자마을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는 직접 사재를 털어 구국 활동을 하고, 이웃사람들의 어려울 때는 나눔과 배품 정신을 직접 실천한 만석군의 이야기가 있는 부자마을이다.

지신정 허준 선생의 아들 효주 허만정 선생과 허만옥은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 선생과 함께 백산상회(白山商會, 白山貿易株式會社)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LG 창업주 구인회 선생은 백산 안희제 선생과 함께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하였다. 백산무역주식회사는 백산 안희제 선생이 경주의 만석꾼 최준 선생과 진주의 만석꾼 허준 선생, 그리고 영남지방의 각 지방별 유지들의 뜻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위장 무역회사이다. 해방이 되자 백범 김구 선생은 경주의 최준선생과 지수의 허준선생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백산무역주식회사의 지분 중에서 허준선생의 아들인 허만정과 허만옥의 지분은 많지 않았으나 설립자 안희제 선생의 지분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는 진주의 만석꾼 지신정 허준 선생이 회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으나 국가를 구하는 일에 백산 선생과 두 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뜻을 가진 사대부들과 부자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자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허씨 집안의 구국정신은 그의 선조인 관란(觀瀾) 허국주(許國柱)(1548~1608)과 그의 아들 연당(蓮塘) 허동립(許東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국주는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으며 지조와 기개가 탁월했다. 45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창의(倡義) 하였다. 허국주는 재산을 기울여 의병 700명을 모아 진주판관 김시민 휘하에서 복병장을 맡았다. 1592년 5월 진주성 대첩에서 왜적과 싸워 죽이거나 포로를 잡아 전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그에게 추증직 참판이 내려졌으며, 그 후 승진하여 경상도 병마우후사가 되었고, 그 후 선무원종 삼등공훈에 기록되었으나 공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 후

관직에 물러나 지수 남강변 염창(濂滄)나루 옆 절벽위에 정자를 지어 관란정(觀瀾亭)이라 편액하고 당대의 명사들과 시를 읊으니 세상 사람들이 기로계 11현이라 했다. 그의 손자 허동립 역시 장군이 되어 병자호란에 큰 전공을 세웠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가문 역시 구국정신이 남들 못지않았다. 구인회 회장의 조부인 구연호는 나라가 어지럽고 외침이 시작되는 곳을 보고 1901년 이후 벼슬에 뜻이 없어져, 곧 낙향하여 학자로서 생애를 보냈다. 구연호는 낙향하여 후학양성에 힘쓰며, 손자 구인회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등 한학을 가르쳤다. 구연호의 아들 구재서(具再書)는 1930년 경 김구(金九) 선생에게 독립운동자금 5천 원을 지원하였다. 구인회도 1942년 백산 안희제의 독립운동자금 요청에 응하여 1만 원을 지원하였다. 구인회는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야겠다” 라고 과감하게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한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단순히 부자로서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라를 살리는데 먼저 발 벗고 나섰다. 이것은 남명선생의 경의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명선생의 많은 제자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솔선수범하여 의병을 이끌었듯이 승산마을의 허씨와 구씨들 역시 사대부 집안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백산 안희제 선생은 의령출신으로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백산 안희제 역시 남명선생의 후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나라가 어려워지니 서로 힘을 모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정신인 의(義)를 발휘한 것이다.

2. 백년대계 교육에 대한 투자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중심인 지수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집안은 승산리 허씨와 구씨 집안이다. 최초 지수초등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승산리에 거주하는 청계공(淸溪公) 허복(許馥) (1866~1966년) 선생이 희사하였다. 허복 선생은 재산이 충족하여 가난한 집의 과세를 위해 사재를 기울여서 박애사(博愛社)를 창립하고 면사무소, 지서 등의 부지를 희사하였다. 허복선생은 일찍이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의 광복운동에 관련되어 대구경찰서에서 감금되는 등 여러 차례 고난을 겪기도 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온 면민이 애도하였으며 지수면 송정마을과 덕암마을에 시혜불망비가 있다. 허복 선생의 아들 허병호(許秉顥, 1920~2003년) 선생은 선대의 옥봉정(玉峰亭)을 개수하여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 후 이 학교는 인근의 반성중학교에 병합되었다. 이와 같이 3대에 걸쳐서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이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었다. 이들은 교육사업과 이웃들의 구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신정 허준 선생이

유언으로 남긴 ‘허씨 의장비’에 잘 나타나 있다. ‘허씨 의장비’에는 친족구휼을 위한 문중의장 120마지기, 일신학당(현 진주여고) 건립에 600 마지기, 마을에 궁핍한 사람을 돕는데 7천만 냥을 분배하라고 적혀 있다.

1924년 10월 허만정 선생을 비롯한 지방 유지 10명이 일신재단(一新財團)을 조직하여 이듬해 4월, 4년제의 사립 진주일신여자고등학교(晉州一新女子高等學校)를 설립하였다. 당시 허만정 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길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임을 절감하여 아버지 허준(許駿) 선생의 도움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뜻이 부근에 널리 알려지고 교육구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게 되었다. 1925년 3월 사립 일신고등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고문에 허준(許駿)·김기태(金琦邵), 회장에 박재만(朴在萬), 부회장에姜渭秀(姜謂秀) 등 이사 15명과 평의원 30명으로 발족하였다. 당초에는 남자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남자들의 교육을 허락하지 않아 여자학교로 승인을 받았다. 설립 당시 60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1929년 3월 제1회 졸업생 19명을 배출하였다.

1938년 4월에는 진주의 주산(主山)인 비봉산(飛鳳山)의 이름을 따서 봉산고등여학교(鳳山高等女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평소 민족교육재단운영의 교육을 탄압해온 일제는 1939년에 개정된 ‘조선교육령’을 빙자, 진주공립고등여학교 설립을 서둘러 일신재단과 봉산여학교를 공립으로 반납하라는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공립고등여학교로 개편되어 처음으로 일본인 교장이 취임하였다. 광복 후 1946년 9월 6년제 18학급의 진주공립여자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51년 8월에는 학제변경에 따라 진주여자중학교와 분리, 진주여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진주일신고등보통학교(현, 진주여고)의 개교 당시의 교훈은 ‘극충극효(克忠克孝)·온아정숙(溫雅貞淑)·감사보은(感謝報恩)·협동친화(協同親和)·근로호애(勤勞好愛)’였다. 그 이후 교훈이 ‘힘써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여성이 되자’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에는 ‘나날이 새롭게 하여 세상을 품는 인재가 되자’로 다시 교훈을 변경하였다. 허만정 선생의 아들 허완구 회장은 1988년 진주여고 생활관인 효주기념관 준공과 1991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 3개동(교실 50개)을 신축하는데 100억 원을 회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1986년부터 진주여고 재학생 장학사업을 전개해 오다 2006년 이후는 장학규모를 확대해 진주여고에 재학중인 2학년과 3학년생 각 15명씩 30명에게 1년 전액 장학금(연간 4,300만원)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다.

LG 창업주 연암(蓮庵) 구인회(具仁會) 회장과 그의 아들 상남(上南) 구자경(具滋暻) 회장은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사업에 많은 재산을 투자하였다. 이들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1974년 충남 천안에 연암축산고등기술학교를 개교하여 1979년 연암축



※ : 曉州家狀, 2010.5.

[그림 3] 일신고등보통학교 설계도면

산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2003년 천안연암대학으로 명칭변경 후, 2016년 연암대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였다. 또한 1984년 고향 진주에 연암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여 2016년 연암공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인회 회장과 구자경 회장 두 부자의 모교인 지수초등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 구인회 회장은 현재 승산리에 있는 지수초등학교 건물을 짓는데 많은 기금을 내었으며, 구자경 회장 역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수초등학교를 구하기 위해 13억 원을 들여 상남체육관을 지었으며, 전학 오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은 체육관 시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몇 차례나 내려와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 갔다. 그는 어린이들이 공을 차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후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각별했다.

이 외에도 구인회 회장은 진주 시민을 위해 1968년 진주성 내에 연암도서관을 기부하였다. 1985년 진주시는 이 도서관을 진주시립연암도서관으로 바꾸어 현재 있는 상대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이후 LG재단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사업과 사회공헌사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 LG 연암문화재단 : 학술지원, 청소년 교육,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

- LG 복지재단: 정의사회 구현사업 및 다양한 소외계층지원 사업
- LG 상록재단: 자연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 등
- 연암학원 : 연암공과대학, 연암대학교 운영
- LG상남도서관 건립: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기증한 사저를 기반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1996년 4월 17일 개관

이 외에 LG의 교육지원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건립,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건립, 국립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조성 부지 제공 등 매우 다양하다.

3. 지역민에 대한 배려

LG/GS그룹 구씨와 허씨집안 경영진들의 고향민들에 대한 애향심과 후원은 남달랐다. 특히, LG그룹 상남 구자경 회장은 고향사랑이 특히 남달랐다. 그는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 1992년에 2,314㎡(700평) 대지에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수면 소재지에 상남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진주시에 기증하였다. 상남복지회관은 지수면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정 2개(남. 여), 목욕탕 2개(남. 여), 이·미용실, 독서실, 그리고 2층에는 대형 예식장을 설치하여 그 당시로서는 면단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당시 농촌 현실로 볼 때 면단위에서 변변한 목욕시설도 없어 목욕을 하려면 인근 반성이나 진주로 가야 할 형편이었는데 지금처럼 개인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라 실제 목욕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한 대형 예식장 등도 당시의 지역민들이 절실하게 갈구하던 것들을 설계에 반영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다. 지수면 상남복지회관 건립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설견학을 와서 배워갔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농촌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기폭제가 되었다(이충도, 2018).

허씨가문 역시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 승산리 마을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지수면사무소 바로 옆에 전국 면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효주공원(曉洲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효주공원은 허만정(許萬正)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공원이다. 효주공원은 2006년 5월 26일 허만정의 6남 허승효(알토전기 회장)가 어머니인 하위정의 유언에 따라 모든 면민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 조성된 공원이다. 당시 이공원은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00㎡(4,840평) 규모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연간 관리비 5,000만원을 허승효 회장이 부담하고 있다.

효주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다. 공원을 낀 담장으로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둔 것은 가족단위로 놀러 왔을 때 서로 부담 없이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도시생활에 지친 누구나 가족단위로 쉬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면단위에서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승산마을 부자들의 독특한 정신을 잘 나타내는 사례다. 특히, 효주공원 내에는 전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공원 중앙에 허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암호문이 쓰인 돌이 바닥에 깔려 있다. 문양은 허씨 집안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병풍에 그려진 문양이라고 하며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 효주공원 전경과 방어산의 모습

4. 허씨와 구씨의 화합정신

승산마을은 허씨 문중과 구씨 문중이 30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도 일체의 폭력사건이 없이 살아왔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 좌파와 우파 간의 살생이 계속 이어졌는데 승산마을을 포함한 지수면에서는 살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부자 동네에 살생이 많았으나 지수면의 경우는 효주 허만정이 도덕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생을 막아 낼 수 있었다. 해방 직후에 청년 30명이 친일적 성향을 보였던 지수면장을 죽이려고 죽창을 들고 몰려왔을 때 효주 허만정 선생은 그 청년들 앞에서 ‘면장을 죽이기 전에 내 배를 먼저 찔러라’ 하면서 몸을 던져 막았다고 한다. 평소에 효주선생이 이웃을 돌보지 않고 혼자서 부를 움켜쥐려고만 했다면 결코 살생을 막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승산마을을 비롯한 지수의 부자들이 화를 당하지 않은 점은

승산망르 부자들의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직전에는 우익 쪽에서 좌익을 해하려 할 때 중간에서 이를 설득하여 좌익을 살렸고,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이 우익을 일괄 검거해서 처형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이렇듯 승산마을의 부자들은 철저한 도덕적 기품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면민들의 세금을 대납해준 허준과 허건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부자들의 나눔이 위기상황에서 살생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1923년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사(衡平社) 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허만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 그의 관심과 애정이 승산마을과 지수면을 죽이지 않는 불살지덕(不殺之德)의 유풍이 남아 있는 동네로 만드는 중심에 우뚝 선 도덕적 카리스마를 갖춘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의 애민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사대부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유학사상의 발호이며,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¹²⁾ 정신의 발호라 할 수 있다.

승산마을 허씨와 구씨들은 300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혼인관계를 통한 혈맹과 화합으로 상호 신뢰를 쌓았다. 특히, 1920년 구씨 집안의 구인회와 바로 옆집의 허씨 집안의 허을수가 결혼을 함에 따라 오늘날 LG/GS 그룹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구인회는 처남들과 함께 1931년 진주 중앙시장에서 포목점인 ‘구인회상점’을 열었고 서로 신뢰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 구인회의 결혼으로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이 시작되었으며, 두 집안의 부(富)가 모여 오늘날 LG/GS 그룹의 근대 기업자본의 원천이 되었다. 즉, 승산마을 구인회와 허을수의 결혼으로 구인회가 사업을 시작한 일은 근대자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 승산마을 부자들이 토지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옮겨가게 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두 가문이 힘을 모아 1947년 1월 오늘날 LG화학의 전신인 락희화학공업사를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창립함으로써 토지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승산마을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은 구인회와 허을수 간의 혼인 이외에도 8건의 접사돈을 맺게 되면서 ‘한 가족’ 처럼 기업경영을 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허씨 집안에서 제공하였고 경영은 구씨 집안에서 주로 하였다. 추진력을 가진 구씨는 외부적 경영, 치밀함을 가진 허씨는 내부적 경영을 맡았다. 승산마을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과 아름다운 이별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씨’와 ‘허씨’의 57년간 동업에서 지분 분할,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서 큰 잡음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기업사례이다. 이러한 신뢰와 화합의 정신은 LG/GS 그룹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에 잘 반영되어 있다.

12)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말이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이들은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 경영권에 있어 잡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는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보여왔다. 효주 허만정 선생은 오늘날 LG/GS 그룹의 모태인 락희화학공업사(락희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자신의 전체 자산의 3분의 1 정도를 출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허신구, 허준구 등 자기 아들들에게 “앞에 나서지 마라. 조용히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라”고 순응과 겸손의 미덕을 가르쳤다. 허씨들은 구씨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고, 잘하는 것은 모두 구씨들의 공으로 돌렸다. 이런 것이 다 유학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허권수, 2018).

이러한 화합경영과 철저한 집안간의 역할 분담은 더 큰 성과를 낳았다. 특히, 네덜란드 PHILIPS사의 크리스털 리(Crystal Lee) 회장은 LG그룹이 ‘구씨’와 ‘허씨’ 가문이 50년 동안 조화를 이루며 동업을 한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1999년 PHILIPS 사로부터 LG필립스 설립을 위해 1조 6천억원 투자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은 항상 경영에 인화(人和)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의 말 가운데 “사람을 사귀었으면 결별하지 말고, 부득이 결별한다 해도 적을 만들지는 말아라.”, “남이 하는 사업을 보고 뒤따라 같은 사업을 벌려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들은 유학자 가문의 자손다운 말이다. 연암 구인회 선생은 누구보다 확고한 경영철학과 신념을 가진 분이다. 연암 선생은 제조업을 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부흥한다고 믿었다. 이렇듯 구인회는 인화(人和)가 기업경영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였다. 연암어록 중에서 이를 잘 나타내는 아래의 말이 있다.

- ▶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 성패가 갈라지는 만큼 사람을 잘 써야 한다.
- ▶ 덕성 있는 경영자는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人和를 생각한다.
- ▶ 한 사람의 잘난 힘보다 열 사람의 못난 사람의 힘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 ▶ 인화로 단결하면 무엇인들 불가능하겠는가?

Ⅵ. 결 론

지수 승산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조선조 초기에 자리를 먼저 잡았고, 그 이후 조선 중기에 능성 구씨가 허씨와의 혼맥을 통해 이거해 온 후 지난 300년 동안 두 가문은 화합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화합의 정신이 오늘날 LG/GS라는 거대 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승산마을은 지리적으로 볼 때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어 예로부터 재물이 모이고 많은 인재들의 나왔다. 승산마을 부자들은 다른 지역의 부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근검절약과 인화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으며, 이웃을 위해서는 항상 술선수범하여 베풀기를 좋아했다.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는 홀연히 일어났다. 이러한 그들의 나눔정신과 애국정신이 LG/GS의 창업주 구인회에게 이어졌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LG 구인회 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을 살펴보면 인화경영(人和經營),正道경영(正道經營), 사업보국(事業保國)이 중심 키워드이다. 이 세 단어 속에 승산마을 부자들의 정신이 다 녹아 있다고 보아진다.

오늘날 LG/GS가 있게 한 것은 바로 승산마을이 조상대대로 모으고 지켜온 부(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자본에서 산업자본을 신속하게 대응한 그들의 임기응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승산마을의 많은 부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 오늘날 근대 기업의 형성에 있어 가장 많이 기여한 분은 바로 지신정 허준 선생이다. 허준 선생은 젊은 시절 학문에도 매진하여 조정에 출사하여 임금의 최측근인 승지(承旨)에 오를 만큼 높은 벼슬도 하였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는 낙향하여 자산을 모으는데 힘썼으며, 지역의 뜻있는 선비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고 후진을 양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백산 안희재 선생이 진주 승산의 허준 선생과 경주의 최부자인 최준 선생과 얼마나 각별하였는가는 백산상회 설립에 얹힌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광복이 되자마자 이 두 분을 찾아와 공손히 인사를 한 것만 보아도 당시 영남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인 경주 최준 선생과 진주 허준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신정 허준 선생은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그의 집은 큰 부자 아니었다고 한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당대에 만석군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 공평히 나누어주기 위하여 재산분배에 관한 것을 허씨 의장비'에 새겨 자녀들 간에 재산문제로 싸움이 없도록 하였다. 재산의 사용에 대한 그의 철학은 아들인 허만정 선생에게도 이어졌다. 허만정 선생 역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구인회가 설립한 락회화학에 투자하면서 모든 경영권을 구인회에게 맡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인화를 위해 구인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납하였다.

승산마을 부자들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허씨 집안에서는 지수초등학교를 만들고, 반성중학교, 진주여고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허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만든 구인회 회장과 그의 아들 구자경 회장은 천안연암대학, 연암공과대학 등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하였다. 또한 이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상대 등에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서 필요한 건물과 재원의 확보에 큰 지원을 했다. 이 외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산마을 부자들과 그 후손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사회에 환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러한 승산마을 부자들의 용전(用錢) 철학은 정말로 후세들의 배워야 할 진정한 부자정신이다.

참고문헌

- 강정화, 승산마을 許氏家の 義蔣과 그 활동,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219-245.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智水 勝山마을의 역사와 인물, 2017년 남명학연구소 하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2017.10.27.
- 김영주, 晩悔 具然鎬의 生涯와 出處,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179-217.
- 김해허씨 승산대종중, 우리의 뿌리, 우리의 고향 勝山.
- 럭키금성, 한번 믿으면 모두 맡겨라: 럭키금성 창업회장 연암 구인회의 삶, 1994.
- 박용국, 승산마을 역사변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7년 학술대회 자료집, pp.1-36.
- 원창애, 승산마을 綾城具氏 문중의 인물과 전개,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93-123.
- 이충도, 진주 지수면 승산리의 역사와 지수초등학교 기업인,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8, pp.40-55.
- 정대율, 오재신, 이충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진주시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8.
- 정대율,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기업가정신 교육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시리즈 1, 2018.
- 정대율, 최만진, 정종태,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기본계획, 진주시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9.
- 止愼亭 許駿 遺稿帖, 2008.5.
- 진주시, 남명사상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8.9.5.
- 한국경영학회,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선언문, 2018.7.10.
- 曉州家狀, 2010.5.
- 허권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경남의 유가기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8, pp.1-21.
- 허권수, 승산리 김해허씨 문중의 인물, 남명학연구, 제56호, 2017, pp.37-91.